

-(으)ㄴ/는 참에

마침 그때, ~하는 김에

적절한 때를 나타냅니다. 어떤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으니 지금 다른 일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뜻으로, 타이밍이 핵심입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진행 중인 행동	-는 참에	나가다 → 나가는 참에
완료된 행동	-(으)ㄴ 참에	온 참에
ㄹ로 끝남	ㄹ 탈락	만들다 → 만드는 참에
자주 함께 쓰는 말	마침, 그렇지 않아도	마침 나가는 참에
띄어쓰기	참은 명사	나가는 참에
아직 시작 전	-(으)려던 참이다	나가려던 참이었어요

■ 언제 쓰나요

형태는 관형형 체계를 따릅니다. 진행 중인 행동에는 -는 참에, 완료된 행동에는 -(으)ㄴ 참에를 씁니다. ㄹ 어간은 ㄹ이 탈락하며, 참은 명사이므로 띄어 씁니다.

그 순간은 때마침 좋은 기회입니다. 이미 한 가지 일을 하고 있거나 어떤 일이 막 일어났기 때문에 두 번째 일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: 마침 나가는 참에 우편함을 확인했다.

보통 마침이나 그렇지 않아도로 시작하며, 우연이 반갑다는 느낌을 줍니다.

-(으)려던 참이다와(과) 구별하세요. 그것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는 뜻이고, 이것은 이미 하고 있으니 하는 김에 한다는 뜻입니다.

■ 예문

- 1 마침 나가는 참에 우편함을 확인했어요.
- 2 시내에 나온 참에 서점에도 들렀다.
- 3 그렇지 않아도 이야기를 꺼내는 참에 잘 오셨습니다.
- 4 밥을 짓는 참에 국도 함께 끓였다.
- 5 직접 만드는 참에 하나 더 만들어 드릴까요?
- 6 회의가 끝난 참에 남은 일을 정리했습니다.

■ 비교

-(으)려던 참이다

꼭 구별해야 할 짝입니다. 려던 참이다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는 뜻이고, -는 참에는 이미 하고 있으니 하는 김에 한다는 뜻입니다.

나가려던 참이었어요. (막 나가려던 참이었다) / 나가는 참에 들렀어요. (나가는 길에 들렀다)

-는 김에

의미가 아주 가깝습니다. 김에는 기회를 활용한다는 점을, 참에는 그 순간의 타이밍을 강조합니다.

나가는 김에 사 올게요. (나가는 김에) / 나가는 참에 확인했어요. (마침 나가는 차에)

-(으)ㄴ/는 판에

둘 다 어떤 국면을 가리키지만 느낌이 반대입니다. 참에는 운 좋은 순간이고, 판에는 절박한 순간입니다.

나가는 참에 들렀어요. (마침 잘됐다) / 바쁜 판에 무슨 여행이나. (이런 판국에)

■ 주의

✗ 직접 만드는 참에 하나 더 만들까요?

○ 직접 만드는 참에 하나 더 만들까요?

관형형 전체에서 그렇듯 ㄹ로 끝나는 어간은 -는 앞에서 ㄹ이 탈락합니다.

✗ 내일 나가는 참에 사 올게요.

○ 나가는 참에 사 올게요.

참은 현재의 순간입니다. 내일의 계획에는 -는 김에나 일반 조건 표현을 씁니다.

✗ 마침 나가는 참에 우편함을 확인했어요.

○ 마침 나가는 참에 우편함을 확인했어요.

참은 명사이므로 관형형 뒤에서 띄어 씁니다.